

“타인들을 위한 따스한 말건넬의 순간”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진혜진 시인 ‘포도에서 만나다’ 발간 문예지 ‘상상인’ 발간도... “손끝에서 태어난 책, 사랑 받았으면”

대개의 경우 문단에 등단하고 첫 작품을 발간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등단 전에 습작을 많이 했던 이들은 곧바로 창작집을 엮기도 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작품의 완결성을 위해 출간을 미룬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권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에 비할 바 없는 ‘떨림’이자 ‘사건’이다.

진혜진 시인. 2016 광주일보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 등단 5년 만에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나다’ (상상인)를 펴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리적인 경계였을지 모른다. 문학사가 10년을 주기로 사조나 트렌드가 바뀌거나 정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이상을 넘어버리면 자칫 작품이 진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써놓은 시가 더 자유를 잃기 전에 더 숙련된 작업을 위해 첫 시집을 강물에 띄운다”는 다소 시적인 표현으로 발간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한계이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한계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창작집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를 받았다. 무엇보다 시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상상인’에서 작품을 펴내게 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시인은 문예지 ‘상상인’ 대표도 맡고 있다)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출판계 또한 독서시장 위축으로 만만치 않다. 문예지, 문학 전문지를 발간하기는 더더욱 어렵지만 그는 문학은 모든 예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르라는 ‘사명 같은 생각’으로 일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사 일을 하다 보니 제 손끝에서 다른 이들의 소중한 책들이 한 권, 한 권 태어납니다. 발간되는 책들이 저마다 가치와 생명력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책이 두 발로 세상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독자의 품에서 사랑받기를 염원하며 출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진혜진 시인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이타적이다. 이번 창작집의 전체적인 주제랄까, 작품 이면에 흐르는 정조는 ‘사랑’으로 수렴된다.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라고 평했다. 아마도 시인이 지닌 따뜻한 성정은 “못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 건넬의 아득한 순간”과도 접맥되는 부분일 게다.

“포도에서 만나다/ 머리와 어깨를 맞댄/ 돌담을 돌면 포도밭이 있다/ 우리의 간격은 포도송이로 옮겨가고/ 담장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지지대를 타고 몸을 쌓는다/ 씨를 품는다/ 우리는 서로 기댄 채 손끝이 뜨거워지고/ 포도는 오래 매달릴수록 그늘의 맛이 깊어진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통화음이 길어질 때’는 발상과 화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진부한 사건이 포도의 이미지로 생기를 얻는 장면들이 아름다웠다”는 신형철 시인(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심사평에서 보듯, 시인의 오랜 습작과 내공이 응결된 작품이다.

시인이 작품의 첫 행 ‘포도에서 만나다’를 시집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어머니와의 이별 때문이다. 등단 일 년 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늘로 떠나는 슬픔을 겪었다. 그는 “슬픔은 아채처럼 속아낼 수도, 풀처럼 뿌리 채 뽑아버릴 수도 없었다”며 “그 그리움을 멈출 수 없어 끝내 우리 ‘포도에서 만나다’라는 문



장으로 약속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의 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우주도 그러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머물다, 서서히 무너지고 본래로 돌아가는 그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불가설을 어떻게 시로 표현할 것인가가 화두였어요. 보다 본래적이고 삶의 통찰을 통한 사유의 깊이를 추구하고자 했지요. 나아가 개인들이 가진 다층적인 목소리와 미묘한 관계성을 시적 미학으로 풀어내고 싶었구요.”

출판 일을 하고 시를 쓰는 틈틈이 시인은 경희사이버대 문창과에 편입해 학교를 마쳤다. 이론적으로 문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다. 아동문학에서부터 시, 소설, 비평, 철학, 동서양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던 게 창작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는 창작과 출판사, 문예지 관련 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매일의 새벽은 그에게 “빛과 어둠과 제가 만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삼자대면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시란 혼자서도 소용돌이가 되는 바람이며 태풍이기도 합니다. 문창에게 지은 죄로 ‘자신 속에 수감된 죄수’이기도 하지요. 스스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이기도 하구요.” /박성천 기자 skypark@

명품만 모아... ‘이건희컬렉션’ 오늘 공개



2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개되는 ‘이건희컬렉션’ 중 김환기 작품 ‘여인들과 황아리’.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인왕제색도’ 등 135점 전시

화제를 모은 ‘이건희 컬렉션’의 핵심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나란히 개막했다.

그동안 기증 작품이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들로만 구성된 대규모 전시는 처음이다. 문화재와 미술 작품 등 총 135점이 출품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실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열어 기증품 9797건 2만1693점 중 문화재 45건 77점을 엄선해 공개한다. 그중 국보가 12건, 보물이 16건이다.

전시는 우리나라 전 시기와 분야를 아우르는 ‘이건희 컬렉션’의 성격과 참모습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사시대 유물인 국보 ‘청동방울 일괄’부터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도자기와 책장, 민화까지 다양한 문화재를 선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유물은 겸재 정선이 만년에 자신감 넘치는 필치로 그린 걸작 ‘인왕제색도’이다. 또 김홍도의 ‘추성부도’와 강세황이 그린 ‘계산허정도’, ‘계산기려도’, 삼국시대 금동불인 국보 ‘금동보살삼존입상’이 관람객과 만난다. 국내에 약 20점만 존재한다고 알려

진 희귀한 문화재인 고려불화 중에는 ‘천수관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가 전시에 나왔다.

아울러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 사경,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9월 26일까지. 방역 지침에 따라 예약자에 한해 30분 단위로 20명씩 입장을 허용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전시실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을 연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미술관에 기증한 총 1488점 중 국내 작가 34명의 작품 58점을 선보인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김환기, 박수근·이중섭·이응노·유영국·권진규·천경자 등 20세기 초중반 한국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모았다. 기증 발표 당시부터 화제가 됐던 희귀 걸작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환기 작품으로는 ‘여인들과 황아리’와 1973년 작 푸른빛 전면점화 ‘산울림 19-II-73#307’도 출품된다. 이중섭의 대표작도 볼 수 있다. 강렬한 붉은 색을 배경으로 주름 가득한 황소 머리를 그린 ‘황소’와 고개를 꼭 숙이고 매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흰 소의 전신을 담은 ‘흰 소’가 공개된다.

이밖에 백남준의 ‘낙원’, 이상범의 ‘무등도원’,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종태 ‘새내아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내년 3월 13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시간당 30명씩 관람한다. /연합뉴스

‘바티칸 박물관’으로 떠나는 아트투어

광주시립미술관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31일 첫 강의

‘해설과 함께 떠나는 세계 박물관 기행.’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은 다양한 주제로 큰 인기를 모았다.

강사로 나선 이창용(사진) 아트스토리 105 대표는 피카소, 모네, 고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미술사를 장식한 유명 작가들의 삶과 대표작들을 입체적으로 소개, 미술과 친근해지도 록했다.

토요문화이벤트 ‘제4기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은 세계 유명 미술관으로 여행을 떠난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요즘, 미술관 투어 강의를 통해 거장들의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기획은 오는 31일(오후 3시-5시)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 모두 세차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강은 온라인 원격강의(ZOOM), 2, 3강은 오프라인 강의로 열린다.



첫 강의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 바티칸 박물관’을 주제로 열리며 ‘인류 역사의 보고 루브르 박물관’ (9월 25일), ‘인상주의의 시작과 끝 오르세 미술관’ (11월 27일) 등의 강좌가 이어진다.

매 강좌당 개강 10일 전 온라인 접수(강좌 개강 전주 수요일)를 시작한다. 1강(200명 한정)은 온라인 강의실(ZOOM) 관련 문자를 전송하며 2강, 3강(99명 정원)은 온라인 접수 후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 8월 20일까지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제1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을 오는 8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한 일반인의 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문화·화·예술·역사·민속·명소 등에 대한 창작 원고 또는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및 칼럼이면 된다. 분량은 200자 원고 30매 내외.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메일(kamjabong@hiks.or.kr)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우상에 상금 100만원, 우수상에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 민간기록문화유산을 조사·수집 및 보존·관리하며 연구성과를 집적하고, 호남학의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062-603-9617. /박성천 기자 skypark@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